

# ‘떡값’관련 37명 전보요청

송파서장 금품수수 재발방지 분위기 쇄신

서울 송파경찰서는 15일 형사과 직원들의 추석 떡값 수수사건과 관련해 형사과 직원 93명 가운데 안아무개 경위 등 37명을 다른 경찰서로 전보조치해줄 것을 경찰청에 요청했다. 송파서 이도조 서장은 이날 “금품수수와 같은 독직사건의 재발을 막고 업무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 대폭적인 물갈이를 결심했다”며 “형사과 반장 8명 전원과 지난 90년 10월 송파서 개설탁부터 형사과에서 근무해 관내 유흥업소와 유착했을 가능성이 큰 직원들을 전보시켜줄 것을 경찰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에 따라 송파서의 다른 부서 직원과 서울시내 30개 경찰서를 상대로 송파서 형사과 근무희망자를 선발한 뒤 곧 전보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